



신현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

물귀신을 강에서 만난 어부

옛날 어느 강변 마을에, 혼자 사는 가난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부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 낚시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부는 낚시대를 앞에 놓고 배 안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웬 사람이 뱃전을 붙잡고 물에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배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뱃전에 매달려 어부가 낚시질하는 것을 구경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부는 상대가 보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낚시대로 열심히 고기만 낚았습니다.

그러자 물에서 올라온 사람은 도로 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밤, 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뱃전에 매달려 어부를 또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사람이요, 귀신이요?”

그러자 상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귀신이에요. 물 속에서 산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심

심해서 놀러 나왔소. 당신은 늘 밤에 고기잡이를 하지요? 당
산하고 말동무나 하고 싶은데, 배 안에 들어가도 되겠소?”

“들어오시구려.”

“고맙소.”

물귀신은 배 안으로 들어와 어부와 마주앉았습니다.

물귀신과 어부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물귀신이 어부에게 부탁했습니다.

“낚시대 하나 더 있으면 내게 주시구려. 나도 낚시질이나
하께.”

“그럴래요? 여기 있소.”

어부는 물귀신에게 낚시대를 넘겨주었습니다.

물귀신은 고기 잡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낚시대
를 물에 담그기만 하면 팔뚝만한 고기들이 낚이는 것이었
습니다.

물귀신과 어부는 고기를 잡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웠소. 밤에 또 봅시다.”

물귀신은 작별 인사를 하고 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귀신 덕에 고기를 많이 잡
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물귀신은 어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몇 시간 만에
다시 보는 거지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낚시
질을 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귀신과 어부는 밤마다 만났습니다. 서너 달 그렇게 지내
다 보니 둘은 아주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물귀신이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말동무로만 지낼 게 아니라 의형제를 맺읍시다.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소.”

“좋지. 나는 요즘 밤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아우
님 덕분이야.”

“저도 형님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운 걸요.”

물귀신과 어부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하루는 물귀신이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한테 일이 생겼어요. 내일 밤 12시쯤 한양에 사는

최 부자 집 외아들이 강으로 오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물에
빠뜨려 잡아먹어야 해요. 그래야제가 좋은 데로 가게 되니까
요. 형님은 내일 밤에는 낚시질을 하러 오지 마세요.”

어부는 물귀신의 말을 귀담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
에는 강으로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집에 앉아 있자니, 물귀신이 말한 한양
의 최 부자 집 외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죽게 생겼구나. 쫓쫓, 안됐다.’

어부는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집 안에 편안히 앉아 있을 수
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뛰쳐나와 강가로 갔습니다.

어부가 살펴보니 젊은이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강가
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으음, 저 사람이 한양에 사는 최 부자 집 외아들이로구나.
정신이 나갔나 봐. 물 속으로 뛰어들 것 같은걸.’

어부는 젊은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그러자 젊은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부는 젊은이를 들쳐 업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 놓자, 젊은이가 곧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강가로 달려오던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정말 그랬어요? 나는 한양 집에 누워 잠이 들었는
데.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지? 아무래도 내가 무언에 흘렸
나 봐요.”

젊은이는 알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부는 젊은이를 한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최 부자 집은 발각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그 집 외아들이
한밤중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너를 찾으려고 사방으로 사람을 보
냈단다.”

최 부자 집 식구들은 젊은이가 돌아오자 뿔 듯이 기뻐했
습니다. 어부는 그들에게 젊은이를 맡기고 고향으로 돌아왔
습니다.

그 날 밤, 어부는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갔습니다. 웬일인

지 물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어찌 된 영문인지 고기가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습니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니다. 어부는 한 달 동안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물귀신이 어부 앞에 나타났습니니다.

어부는 물귀신에게 사과를 했습니니다.

“미안하네. 나 때문에 많이 섭섭했지?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하도 딱해서 살려 줬어.”

“됐습니니다.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운명이었나 보죠. 뭐, 어쨌든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잖아요.”

“고생은 무슨……. 자네 덕분에 몇 달 동안 고기를 많이 잡아서 괜찮아.”

“형님, 그 동안 잡지 못한 고기를 내가 다 잡아 왔습니니다.”

물귀신은 허리띠를 풀었습니니다. 그러자 옷 속에 담겨 있던 고기들이 쏟아져 배를 가득 채웠습니니다.

헤어지기 전에 물귀신이 말했습니니다.

“형님, 제가 사나흘 안에 사람 하나를 잡아먹고 좋은 데로 갈 겁니다. 그러니 며칠 강가로 나오지 마세요. 제가 좋은 데로 가면 형님께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어부는 물귀신이 시키는 대로 며칠 동안 강가로 나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자 사나흘 뒤에 사람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니다.

물귀신에게서 편지가 온 것은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니다. 물귀신은 자기 사는 곳을 알려 주며 꼭 찾아오라고 했습니니다.

어부는 편지를 받자마자 물귀신을 만나러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니다. 물귀신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하인들을 거느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니다.

어부가 찾아오자 물귀신은 버선발로 달려 나왔습니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 동안 뵈고 싶었습니니다.”

“반갑네. 좋은 데로 간다더니 소원대로 되었군그래.”

“예, 형님. 제가 마침내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평평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잘 됐군. 축하하네.”

어부는 물귀신의 집에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니다.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며칠 동안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니다.

어부가 그만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물귀신은 선물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니다.

“형님, 도중에 풀어 보지 마시고 막에 가서 풀어 보십시오.”

“알겠네. 무슨 선물인지 모르지만 고마워.”

어부는 물귀신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니다. 선물 보따리를 풀어 보니 배개만한 금덩어리였습니니다. 어부는 금덩어리를 조금 잘라 내다 팔았습니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금덩어리는 잘린 자국 없이 그대로였습니니다.

물귀신 덕에 부자가 된 어부는 한양으로 올라가, 대궐 같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

